

위대한 김일성 -

# 로동신문

김정일주의 만세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3호 [루체 제25061호] 주제 104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사설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해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배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세겨 온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 악동하는 짙음으로 비약하는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거연히 일떠선 백두산성 응천년발전 소와 더불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조선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은 인민들에게 켜다린 경정파 흰회를 안겨주고 있다.

당창건 70돐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업적을 길이 및 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철통같이 풍진 일상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파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시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역사이며 수령님의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결부되어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의 위업은 펼승불레이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물리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역사적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조선로동당은 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조선로동당을 창건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창당의 첫 시기부터 수십성상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하였다. 그로정에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점,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도전과 압력도 있었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도 있었다. 시련은 간고하였지만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혁명적성격은 추호의 변함이 없었다. 조선로동당이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력한 당으로,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혁명한 령도의 업적으로 빛을 뿐이다.

조선로동당의 장구한 력사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건설령도사는 특출한 자리를 차지 한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원생의 책임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김일성주의의 가치밀에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령도에 출전설의 새로운장을 열지시였다.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에 철저히 확립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건설하시고 인민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군이다.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는 위대하고 성스러운것은 인류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세기를 이어 사소한 침체와 담보,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며 인민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한 당은 이 세상에 없다.

이어서 주사의 위력으로 혁명의 막음을 끝인히 이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혁명하는 당의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있다.

혁명적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헌길로 향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고시는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지도사상으로 하고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회를 최고 강령으로 들어뛰고나아가는 백전백승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진로도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당이 내새운 혁명의 70년대 전략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이다. 수령영성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판월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풀어뛰고 인민대중의 청렴성과 평화로운 혁명으로,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혁명한 령도의 업적으로 빛을 뿐이다.

오늘의 조선로동당은 철마다 혁명의 힘을 더하고 있다. 혁명의 힘은 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투톱의 준비시키고 경제국방병진으로, 선종찰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며 전민무장화, 전국육체화를 실현한 혁명의 참모부가 우리 당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수호자로 일컬어지는 혁명가들이 빛나게 구현하여왔다.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투톱의 혁명으로, 혁명의 승리가 있다. 혁명하는 당은 사상과 함께 종대를 증시하여야 하며 군사강국을 일폐세워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강력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이 있고 혁명의 승리가 있다. 혁명하는 당은 사상과 함께 종대를 증시하여야 하며 군사강국을 일폐세워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십성상 복록을 품내 중시, 군사증시로 선군에 대해 구현하여왔다.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투톱의 혁명으로, 혁명의 힘을 더하고 있다. 혁명하는 당은 사상과 함께 전종찰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며 전민무장화, 전국육체화를 실현한 혁명의 참모부가 우리 당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수호자로 일컬어지는 혁명가들이 빛나게 구현하여왔다.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투톱의 혁명으로, 혁명의 힘을 더하고 있다. 혁명하는 당은 사상과 함께 종대를 증시하여야 하며 군사강국을 일폐세워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에서 그

어느 당도 내놓지 못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고 청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당의

영도밑에 우리 청년들은 승리의 7, 27과 비약의 천리마시대, 속도전의 불바람을 안아왔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영웅ic들과 함께 이어 사회주의의 수호정에서의 패승과 지식경제강국건설의 회한한 시대를 펼쳤다. 위대한 혁명의 존함으로 및나는 청년조직, 위대한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이 어린 혁명의 희열봉을 높이 쑤켜든 청년전위들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당들이 청년문제를 외면한 터에 청년들이 정신적불구자로, 도덕적타락분자로 되어 종당에는 당과 수령, 조국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질 때에도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투톱의 무장하고 백전백승의 영웅에서 사리를 수놓아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들여 키우신 주체혁명위업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당의 혁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여가는 장엄한 전군길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건설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출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땡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에 들어서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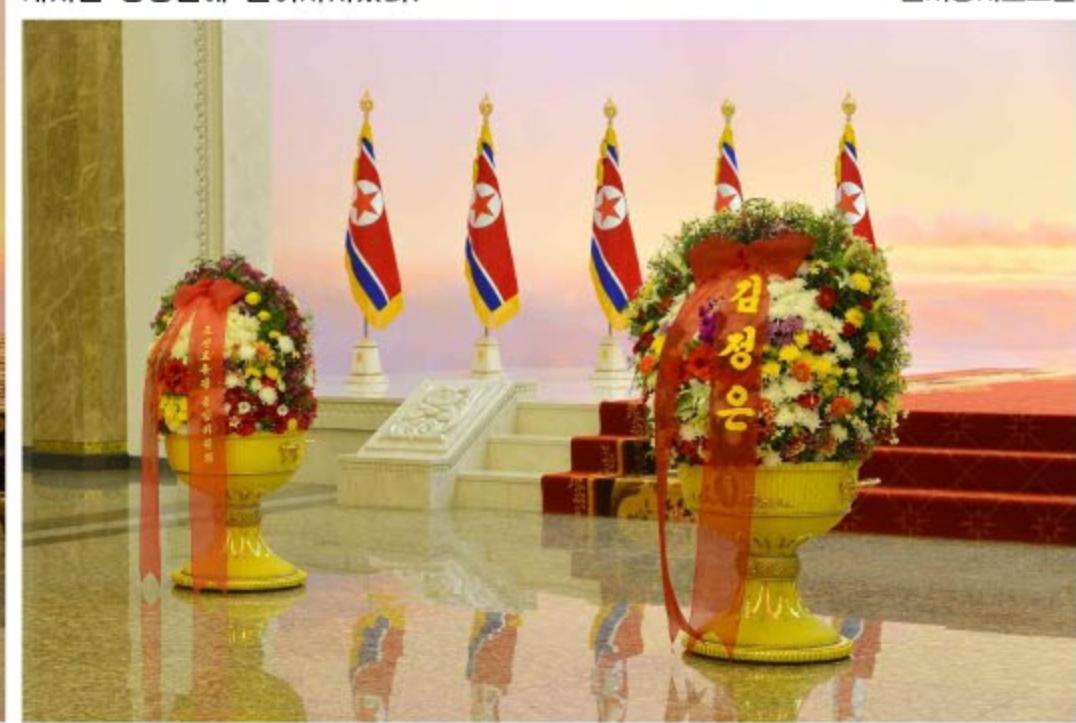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폐성의 상징이시고 한없이 귀중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한 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9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  
리나라를 공식친선  
방문하고있는 중국공  
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상무위원회 위원  
이며 서기처 서기  
인류운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대표단을 접견  
하시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 전국위원회 부  
주석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  
부장인 왕가서동  
지, 외교부 상무부부  
장 장업수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  
실 상무부주임 송도  
동지, 중국인민해방  
군 총정치부 부주임  
은방룡동지, 중국공  
산당 중앙위원회 대  
외연락부 부장 류  
홍재동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  
군동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  
남동지, 김양건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운산동지  
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류운산동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  
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정중히 전달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성국  
가건설투쟁을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표단을 접견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습근평총서기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고있  
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조선  
로동당 당원들,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  
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이끌  
어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독립  
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최근간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유훈을 반들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령도력과  
조직력, 조선로동당의 호소력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한데 대하여 중국당과 정부, 중국  
인민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  
하였다.

중국공산당대표단은 피로써 맺어진 중  
조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전통

적친선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친  
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면  
적으로 발전시킬 사명을 안고 조선을 방  
문하였다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  
지고있는 전략적인 중조친선을 변함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하고 드림없는 방침이라고 말하  
였다.

그는 중국당과 정부는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  
어주신 중조친선관계를 특별히 귀중히  
여기고있다고 하면서 중국당과 정부는  
조선당과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전략적  
인 중조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  
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할것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제1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수행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  
산당 중앙위원회와 습근평총서기동지  
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  
에 류운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대표단을 보내준것은 조선로동  
당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  
면서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  
렬히 환영하시고 습근평동지를 총서  
기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지도집단  
과 중국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  
산당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이 두 당,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의의깊  
은 방문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  
였다.

그칠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계승하고 빛내  
여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통적인 조종친  
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려  
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조종  
친선의 불파의 생활력이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  
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손님들과  
조종 두 나라 관계의 강화발전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류운산동지는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  
를 표시하시고 대표단 전체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을 뿐 릴 것이다

중앙 보고 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배두의 불은기 높이 주체혁명의 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알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70성상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하나의 사상과 협통을 끊곳이 고수하며 조국의 강성번영의 대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위대한 당입니다.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가 끊곳이 이어지고 조국땅우에 깊음으로 악동하는 새로운 승리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당 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것은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전당, 전군, 전민의 더없이 충정파 열화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전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고수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경 시스 레운 혁명적 명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同志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발들어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 국영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북인민들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애국지성을 다지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전두에 모시고 혁명적당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혁신적인 도, 창건과 강화발전도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당의 철대적인 권위와 위력을 위해 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혼합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의 대가 철백번 배어여도 번갈수 없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래가 있고 백전백승의 원천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혁명운동발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온 혁신적인 혁명적사상을 창시하고 동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은 인민을 끌고 인민에게 의거하며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반드시 당에 충실히 당의 일체를 이루어내는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동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밑에 당사업을 사람파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확립하며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과 협력적인 당을 굳게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의 길에서 당사업을 사람파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확립하며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과 협력적인 당을 굳게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의 길에서 당사업을 사람파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확립하며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과 협력적인 당을 굳게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의 길에서 당사업을 사람파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확립하며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과 협력적인 당을 굳게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의 길에서 당사업을 사람파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확립하며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과 협력적인 당을 굳게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장구한 기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전변을 이룩한 우리

으로 영원히 빛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은 역사에 일찌기 없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명도의 유일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실현한 수령의 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밑에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판찰하여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과 분파적요소들을 청산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

으로 영원히 빛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은 역사에 일찌기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의 학월한 사상과 명도밑에 전인민민족의 간고한 시련을 해치며 이 땅에서 좌취와 억압, 락후와 빈궁을 영역 쓰러버리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학원을 일깨워 놓았으며 민족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정치군사적, 경제문화적도제를 들킴히 다져놓은 조선로동당의 업적은 사회주의집권당건설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령도자는 투철한 자주정치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세상에 높이 떠올려온 공지높은 력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同志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사상과 혁명군대의 전선과 강화발전에 선착적인 힘을 기울여온 우리 당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책을 짓부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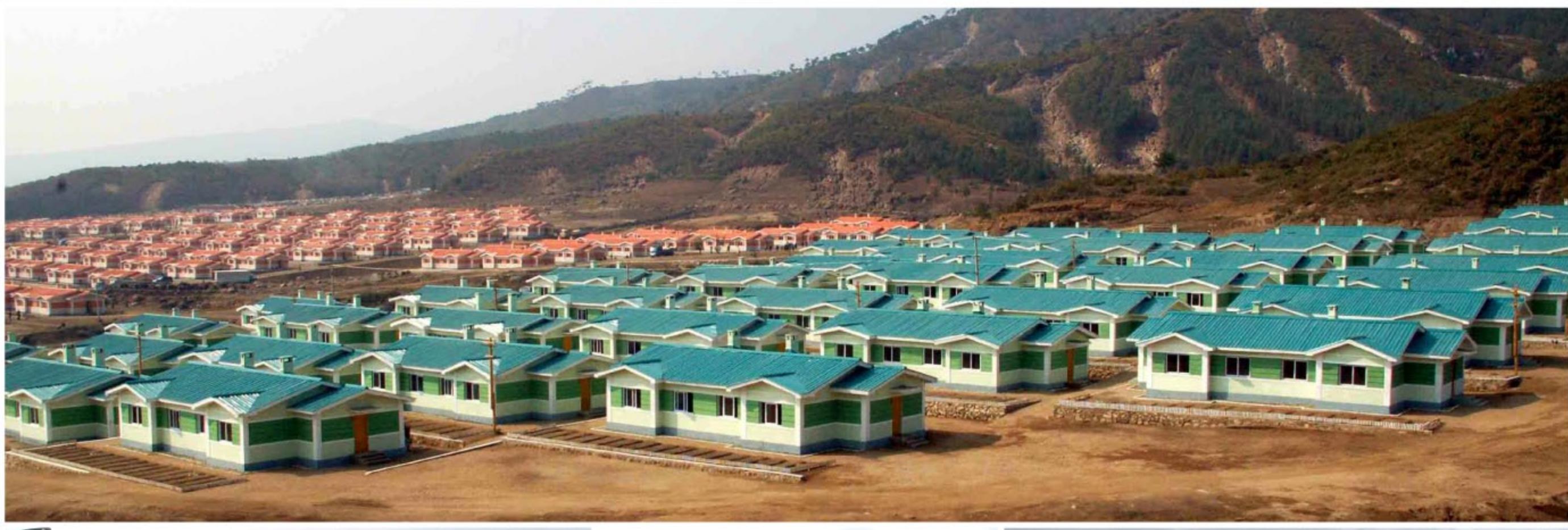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여러분은 경국의 초행길에서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 사회건설의 정치, 군사, 경제적도제를 쌓았으며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면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3년동안에 수행하고 철리미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아 사회주의강성으로 밀어온 경이적인 기적은 인민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자주의 원칙과 립장을 드립없이 전지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명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였으며 혁명파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결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왔습니다.</





## 6 면에서 계속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전쟁에서 병사가 가진 것은 물과 공기뿐이었다. 그것은 병사에게는 인민 앞에 지닌 깨끗하고 맛있는 차였고 인민에게는 너무도 물겨운 사연이었다. 요람을 마련하는 건설만이 사랑의 전쟁이 아니었다. 하나라도 무었인가 도와주려는 인민들과 그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믿어주는 병사들과의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전투』가 또 벌어졌다. 어느쪽도 질 수가 없었다. 승자도 패자도 다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세상에 이런 화복은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다. 인민의 요람을 지어주려 온 병사들은 물과 공기밖에 가질 수 없다고 하고 거기서 살게 될 인민들은 뜻뜻한 구들에게 풍성한 식사를 하면서도 자기 짐을 지어주는 병사들에게 밤 한그릇 세손으로 지어줄수 없는 이런 기막힌 사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배학동의 선생들이 눈물속에 추억하는 떡이야기, 명절날을 맞으며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 군인들을 찾았지만 그것을 병사들에게 계속 받아주지 않아 군인들의 작업현장과 마을을 몇번이고 오가다가 틀당이처럼 굳어진 그 떡, 하지만 배학동선생들은 그때도 물려설수 없어 기쁨에 빠져들어 다시 찾아온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건만 이번에도 또 받아주지 않아 결국은 다시 틀처럼 굳어졌다. 떡은 둘처럼 굳어졌지만 정파정의 『전투』는 도처에서 각이한 모양새로 더 격렬해졌다.

험한 산길을 애돌아 군인들이 일하는 건설장과 무뚝뚝히 살아나고 소문없이 돌아왔지만 더욱날엔 병사들이 그것을 들고 기어이 주인을 찾아와 돌려주는 모습이 인민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그렇게 주고 밀고 하는 속에 주인없는 원호몰자들이 생겨나 일군들이 물어리를 끊었다.

그렇게 인민들이 안타까이 소원하는데 그 진정을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어떠하랴. 하면 이 『전투』의 승리자는 언제나 병사들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숭고한 인민관이 온 심장에 가득한 우리 병사들이 어찌 티끌만큼도 양보할수 있으랴.

진짜 그들은 물과 공기밖에 몰랐다. 그러면서도 큰물이 지나간 발에서 한이삭두이 쟁강네이를 모아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보내주었다. 피해주민들에게 자기들의 비상미까지 떠나 보내주었고 그 바쁜 속에서도 영에 군인들과 로병들을 돌봐 많은 일을 해주었다.

병사들은 인민을 위해 땀으로 퍼운 소금꽃을 사랑하고 인민들은 병사들이 퍼워준

웃을꽃으로 복된 세월을 살아가는 이것은 단순한 미풍이라고만 볼수 없다. 거기에는 너무도 고귀하고 성스러운것이 있다. 그것은

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원수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의 그 순결한 믿음을 더 소중하게 지켜주고 로동당 민세를 부르는 민심의 대하가 더 맥박히 굽이치게 하려는 우리 병사들의 울침길은 깊이 성이 깃 들어 있는 것 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와 뜻도 마음도 감정도 하나인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뿐아니라 인민의 믿음의 수호자라는것이다.

이제 며칠이면 여기에서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게 될것이다. 이제 단풍이 들고 또 서리꽃이 피며 또 봄꽃이 향기 풍길 때에도 그들의 탈자육은 보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라선땅에 일떠선 무릉도원의 기초는 돌과 세멘트가 아니라 원수님의 마음을 담은 병사들의 고귀한 땅방울과 깨끗한 향냄이었다는것을 두고두고 후세들에게 전해줄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이면 여기에서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게 될것이다. 이제 단풍이 들고 또 서리꽃이 피며 또 봄꽃이 향기 풍길 때에도 그들의 탈자육은 보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라선땅에 일떠선 무릉도원의 기초는 돌과 세멘트가 아니라 원수님의 마음을 담은 병사들의 고귀한 땅방울과 깨끗한 향냄이었다는것을 두고두고 후세들에게 전해줄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이면 여기에서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게 될것이다. 이제 단풍이 들고 또 서리꽃이 피며 또 봄꽃이 향기 풍길 때에도 그들의 탈자육은 보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라선땅에 일떠선 무릉도원의 기초는 돌과 세멘트가 아니라 원수님의 마음을 담은 병사들의 고귀한 땅방울과 깨끗한 향냄이었다는것을 두고두고 후세들에게 전해줄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이면 여기에서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게 될것이다. 이제 단풍이 들고 또 서리꽃이 피며 또 봄꽃이 향기 풍길 때에도 그들의 탈자육은 보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라선땅에 일떠선 무릉도원의 기초는 돌과 세멘트가 아니라 원수님의 마음을 담은 병사들의 고귀한 땅방울과 깨끗한 향냄이었다는것을 두고두고 후세들에게 전해줄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오늘의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이제 며칠후에는 그들은 라선땅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기념우표 발행

사적현판제막식 로씨야 노보씨비르스크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적현판이 로씨야 노보씨비르스크역에 모셔졌다.

현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84년 5월 21일 다녀가신 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2001년 8월 11일 다녀가신 역사》라고 써져 있다.

현관제막식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제막식에는 로씨야 서부씨비르철도국, 노보씨비尔斯코주정부, 노보씨비尔斯코역의 인사를 포함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노보씨비尔斯코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그리자이 로씨야 부국장과 김형준로씨야 인사를 드린다. 그들은 대한 추억은 이 사적현판을 더불어 로씨야인들의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될 것이다.

이어 꽃다발들이 현관들에 전猩되었다.

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서부씨비르철도국 부국장은 가장 위대하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떠나갔으나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처럼 위대한 분들을 맞이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의 이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들의 업적을 전하는 사적현판을 정중히 보존해 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오늘 노보씨비尔斯코역에서는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사적현판들을 제막하는 행사는 조관제막식이다.

그는 조관제막식에 불멸의

업적을 창건 70돐을 맞으며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티켓 1종, 개별우표 1종)를 배포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 밀에 친선적인 조선이 더욱 부발행하였다.

소형전지와 티켓 전시에는 조선로동당을 상징하는 당마크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주제 34(1945)-주제 104(2015)》라는 글발

이 세겨져 있다.

소형전지에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았던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이번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비법한 한 예지와 타월한

명도역, 고매한 풍모를 지

나니고 주체혁명워업을 승

리의 한 걸로 현명하게 이

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정중히

형상되어 있다.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와 함께 조선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 《주체 철원성을 위해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파도나운 심초소를 찾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과 유화 《6월의 아침》을

반영한 뮤음전지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주체적인 당건설사상파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천

민군민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며 10월의 명절을 뜻깊

게 경축하는데 이미지하게 될 것이다.

보석되었다.

한희로운 10월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와 낫, 볶을 얹어 끓여고 당을 따라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한 개별우표도 있다.

새로 나온 기념우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파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천민군민의 신념을 더욱 굳게 주며 10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데 이미지하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주제 34(1945) ~ 주제 104(2015)



조선우표 주제 104(2015) DPR KOREA 30원

## 해외연고자 가족들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해외연고자 가족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해방과 민족대의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생애를 되새기며 사적물을 주의깊이 돌아보았다.

해외연고자 가족들은 만경대 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고, 방문을 마치고 등국항일 혁명렬사 장을 화동지의 순자 장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니

승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에 안겨와 결정을 금할수 없다.

김일성주석님은 가장 털랄한 수령, 회세의 위인이다.

이번 방문은 나에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한 명도를 승승장구하여온 조선로동당의 70년 역사를 깊이 강조하였다.

이밖에 해외연고자 가족들은 당창건 기념탑,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인민이 강성번영하는 부

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바란다.

중국 항일 혁명 투쟁 열고자 강자회의 아들 강우장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았으며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추억을 되어난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만경대 일가분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들이 시다하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일성종합대학

방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들이 시다하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 대표단이 9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이의식에 참가하였다.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이의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 대표단이 9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를 참가하며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처를 펼쳤다.